

##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정기원\*\*

이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에 대해 따로 살고 있는 성인자녀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크기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간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교환이론적 접근을 분석틀로 하고, '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부모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노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상호교환에 있어서의 보상자원 소유여부, 그리고 피부양욕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단계 군집 표집법을 통해 추출된 전국의 9,355가구에서 2,535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별거 성인자녀가 있는 2,205명을 분석한 결과 잠재적 보상자원을 지니고 있는 노부모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잠재적 보상자원을 지니지 못한 노부모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독신 노인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가장 낮았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한 노인일수록 별거 성인자녀들로부터 낮은 수준의 정서적 지원은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일부는 세대간 가족관계가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전체 노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정서적 지원의 변량을 8.9 퍼센트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단어: 노부모, 별거 성인자녀, 가족유대, 세대간 가족관계, 정서적 지원

\* 이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도움말을 준 익명의 세분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I. 서론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찾아진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퍼센트에서 14퍼센트까지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국의 경우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그리고 일본의 25년과 비교할 때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름을 보여 준다(정경희 외, 1998: 43).

인구의 고령화는 다른 사회 현상들-예를 들어, 핵가족화 및 소자녀 규범화 등-과 맞물려 세대간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 가족관계 형태의 변화는 가족내 노인부양 기능이 축소되는 경향으로 진전되고 있는데(김두섭 외, 2000),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면서 노후부양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최순남, 1999: 346),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노인의 부양에 관한 주제가 비중있게 다뤄지게 되었다.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은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세대관계, 세대간 가족유대, 세대간 가족지원 등의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노인부양과 관련한 연구에서 부양자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 등에 관한 연구(예를 들어, 김기태·이은희, 1997; 이은희, 1998; 박영란, 1999 등)와 함께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세대관계 또는 세대간 가족유대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다<sup>1)</sup>. 이는 인구가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노인부양과 관련한 세대간 가족유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기능에 있어 노인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세대간의 연대의식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대간의 가족유대에 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Bengtson, 2001; Euler et al., 2001).

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세대관계 형태를 유형화하고 있는 김두섭 외(2000)의 연구가 있으며,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사회적 지원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유성호(1997), 윤종희·이혜경(1997), 김정석·김익기(2000)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노부모와 자녀간 관계의 실태를 단순 기술하고 있는 연구로는 이가옥 외(1994), 정경희 외(1998), 황미영(1999)의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성인자녀간에 나타나는 가족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가족유대는 주로 자녀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자녀의 사회적 지원은 노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성호, 1997; 윤종희·이혜경, 1997; 이형실, 1999; 황미영, 1999; 김윤정·최혜경, 2000; 김정석·김익기, 2000; Lee et al., 1995; Silverstein et al., 1996; Yang, 1996; Chen and Silverstein, 2000; Reinhardt and Blieszner, 2000). 특히 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노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Pyke, 1999; Chen and Silverstein, 2000),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지원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원관계의 형태가 노부모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지원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며, 노후의 의료 및 생활보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나아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의 정도는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최순남, 1999: 343). 그리고 이러한 외로움의 문제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따로 살고 있는 성인자녀가 그들의 노부모에게 보이는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998년도에 이루어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자료를 이용해 먼저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간의 정서적 지원관계의 정도를 살펴보고, 정서적 지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인이 지닌 여러 특성에서 찾아볼 것이다.

## Ⅱ. 세대간 가족유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 1. 세대간 가족지원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변동 안에서 세대간 가족유대의 형태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세대관계 이면의 심층구조를 분석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김두섭 외, 2000: 57). 세대에 관한 종단연구(LSOG: Longitudinal Study of Generations)의 자료를 이용해 벵슨(Bengtson, 1975)은 세대간 관계에 대한 개념화 및 조작화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연구 결과 세대간의 상호작용, 응집력, 동질성,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보이는 행태적 및 정서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세대간 연대를 이론적 구성체로 도입하고 있으며, 세대간 연대를 6가지의 하위차원<sup>2)</sup>으로 정의하고 있다(Bengtson, 2001). 세대간 연대를 바탕으로 세대간 가족관계를 유형화할 수 있는데, 실버스타인과 벵슨(Silverstein and Bengtson, 1997)은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세대관계를 밀착형(Tight-Knit), 친목형(Sociable), 원교형(Intimate but distant), 의무형(Obligatory), 그리고 분리형(Detached)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구성비를 보여 주고 있다<sup>3)</sup>.

김두섭 외(2000)는 세대관계의 주요 하위차원으로 일정 정도의 규칙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근접성,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교환, 그리고 그 교환을 규정하는 규범 및 연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세대간 근접성, 세대간 지원관계 및 세대관계의 규범성을 바탕으로 세대관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sup>4)</sup>, 우리나라 중년층의 36.2 퍼센트가 노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면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거나

2) 세대간 연대의 하위차원은 다음과 같다(Bengtson, 2001: 8).

- ① 정서적 연대(affectual solidarity):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나타내는 동질감 및 평가
  - ② 공동적 연대(associational solidarity): 가족구성원 사이의 세대간 접촉 형태 및 빈도
  - ③ 합의적 연대(consensual solidarity): 의견, 가치관 및 적응에 있어서의 세대간 합의
  - ④ 기능적 연대(functional solidarity): 세대간에 형성되는 수단적 및 정서적 지원의 교환
  - ⑤ 규범적 연대(normative solidarity): 가족 가치관의 중요성 및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에 대한 기대
  - ⑥ 구조적 연대(structural solidarity): 가족구성원들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나타나는 세대간 상호작용의 기회적 구조
- 3) 세대간 가족관계의 유형별 구성은 밀착형 25%, 친목형 25%, 원교형 16%, 의무형 16%, 그리고 분리형 17%의 분포를 보여, 미국 사회에 있어 지배적인 세대관계는 보이지 않고 있다(Silverstein and Bengtson, 1997).
- 4) 김두섭 외(2000: 83)는 세대관계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유형화 하고 있으며,
- ①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노부모 부양관이 강한 동거/규범형
  - ② 노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노부모 부양관이 다소 약한 동거/기능형
  - ③ 노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면서 쌍방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별거/호혜형
  - ④ 노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별거/비호혜형

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7.7 퍼센트는 지원기능과 노부모 부양관이 약한 무교환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몇몇 연구에서 세대간 가족관계를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세대관계를 구성하는 심층구조의 실증적 분석이 어려운 탓에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주로 물질적 및 비물질적 지원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세대간 지원관계에 관한 주제가 비중있게 다뤄지게 되었다(박재홍, 1991; 이가옥 외, 1994; 정경희 외, 1998; 이형실, 1999; 황미영, 1999; 김두섭 외, 2000; 김정석·김익기, 2000; Lee et al., 1995; Call et al., 1999; Pyke, 1999; Chen and Silverstein, 2000; De Vos, 2000). 박재홍(1991)은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를 교환이론적 관점에 입각해 고찰하면서 노인문제 발생의 구조적 배경을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노인들이 기왕에 소유하고 활용해 왔던 재산소유권, 경험과 지식 등의 각종 자원의 상실 및 가치저하에서 찾고 있다. 세대간 가족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토대가 김정석·김익기(2000)의 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교환이론에서의 호혜성의 규범을 바탕으로 세대간 지원형태가 쌍방향의 유형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공급형이나 무교환형인 노인들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세대간 가족지원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주효과모델, 완충효과모델 및 매개효과모델(이형실, 1999; 김윤정·최혜경, 2000)이나 위계적 보완모델 및 특정과업 모델(황미영, 1999)로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실증 분석의 결과들은 세대간 가족지원의 유형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성인자녀의 가족지원이 노부모의 안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실증적인 분석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Lee et al., 1995; Chen and Silverstein, 2000). 그러나 세대간 가족지원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세대간 지원관계의 효과에 초점을 두면서 노부모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만 분석을 하

---

⑤ 지원과 노부모 부양관 모두에서 세대관계가 약한 무교환형  
김정석·김익기(2000: 156)는 다음의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① 쌍방향-자녀에게 지원을 주고받는 형
- ② 수급형-자녀에게 지원을 받기만 하는 형
- ③ 공급형-자녀에게 지원을 하기만 하는 형
- ④ 무교환형-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형

고 있을 뿐이며, 세대간의 가족지원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 2. 세대간 가족지원의 결정 요인

세대간 지원관계는 여러 형태로 조작화되고 있으나, 주로 구조적, 기능적, 그리고 평가적 차원에서 개념화된다(Chen and Silverstein, 2000). 세대간 가족지원의 구조적 차원은 가족간에 형성된 사회망의 형태와 그 사회망을 통해 개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크기로 정의되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녀의 수, 성별, 그리고 지역적 근접성 등을 포함하게 된다(Hoyert, 1991; Eggebeen, 1992). 세대간 지원의 기능적 차원은 수단적 및 정서적 도움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단적 지원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말하는데, 부양, 가사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은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이나 신뢰감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도움의 적정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는 세대간 지원의 평가적 차원을 이룬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는 주로 구성원 개개인이 지니는 가족 기능의 틀 속에서 역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내집단적 성향이 매우 짙게 나타난다(정기원, 1991; Back, 1981). 가족의 구성원이 떨어져 살게 될 때에도 그들 사이의 유대는 꾸준히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유대관계는 주로 수단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 진다. 수단적 지원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으로 나타나고, 정서적 지원은 구성원들 사이의 방문이나 전화 통화, 그리고 편지의 왕래 등으로 나타난다.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가족 유대가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 두가지 형태가 만드는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어 왔다. 하나는 두 형태의 교류가 서로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시각은 이혼한 아버지와 이제는 남이 되어 버린 전처와 함께 사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주로 나타난다.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 보다 자녀들을 더 자주 만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Furstenberg et al., 1983; Grief, 1985).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형태의 상호작용적 관계는 가족 유대를 결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예를 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별거 성인자녀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 등-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수단적 지원과 기능적 지원 관계에 같은 성향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단적 지원이 정서적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는 정서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 질수록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각 구성원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쉽게 드러나며, 이에 따른 수단적 지원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Chambers, 1979). 또는 정서적 지원이 자주 제공될수록 구성원들 사이에 수단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쉽게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실제의 수단적 지원도 많아지게 된다.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정도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셀처 외(Seltzer et al., 1989)는 두 형태의 교류가 서로 대체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대체적 관계는 경제학이나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에서 보이는 대체 효용의 감소에 관한 전제를 바탕으로 설명되며, 한 형태의 지원이 다른 지원 형태의 효용 또는 가치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구성원이 떨어져 사는 경우엔 하나의 지원 형태에 대한 대체로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을 찾아 뵙지 못하는 대신에 선물이나 돈을 부쳐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간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분석으로만 연구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노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Pyke, 1999; Chen and Silverstein, 2000),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차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연구의 제한때문이기도 하다. 세대간 가족지원은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접근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박재홍, 1991; 김두섭 외, 2000; 김정석·김익기, 2000; Hogan et al., 1993; Silverstein and Litwak, 1993; Kramer, 1997; Call et al., 1999),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교환이론적 시각에서 고찰될 수 있다.

에머슨(Emerson, 1981)은 교환이론의 주요 가정을: 첫째,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 행위라 일컫는다; 둘째, 모든 가치있는 사상은 포만, 가치 적응, 또는 한계효용 체감

의 원칙을 따른다: 그리고 셋째, 사회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대가로 제공된 이익을 조건으로 한다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교환의 과정에 있어서 교환관계는 한계효용 체감의 원칙에 따라 보상의 가치가 점차 적어지면서 형평의 상태로 접어들며, 세대간 가족지원의 관계도 교환이론의 원칙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미래의 지원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교환관계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호혜성의 규범이 깨지더라도 상호지원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일방적인 지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커진다(Call et al., 1999). 특히 노부모가 가진 자원이 감소하고 또 그 가치가 축소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이 되고, 이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환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호혜성의 규범을 바탕으로 첫 번째 가설을 도출한다. 이 연구가설은 노부모의 보상자원 소유여부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자녀와의 상호교환 관계에서 보상으로 제공할 자원을 지닌 노부모에게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정도는 보상 자원을 갖지 못한 노인의 경우보다 더 클 것이다'로 설정된다.

이 연구에 있어서의 두 번째 가설은 전통적인 교환이론에 새로이 추가되는 자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정된다. 자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환의 관계에 있어서 행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보상으로 정의되는데(Turner, 1982: 289), 이러한 자원개념은 주관적 인지의 측면보다는 객관적·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박재홍, 1991: 4). 자원은 개인적 특성, 물질적 소유, 관계적 특성, 권위, 일반화된 강화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Dowd, 1980; 박재홍, 1991에서 재인용), 사랑, 지위, 정보, 돈, 재화, 서비스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Foa and Foa, 1980; 박재홍, 1991에서 재인용). 그리고 행위자의 건강도 상호교환관계에 있어서의 자원의 일종으로 파악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원들이 교환관계의 상대방에게 직접적 보상이 되거나 보상제공의 역량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원 소유자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박재홍, 1991: 5).

상호교환의 관계에서 자원은 권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교환이론에서 권력과 종속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다. 교환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은 교환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기대하며 요구하게 되고, 권력의 자원을 지닌 사



람은 교환의 대상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은 특히 부부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녀 불평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노인은 그가 지닌 자원이 감소하고 또한 그 가치가 축소되면서 자녀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 작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김정석·김익기,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두 번째 가설은 '노부모의 피부양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은 줄어들 것이다'로 설정된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현세대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사회·신체적 특성 및 각 부문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러한 욕구들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과) ...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가치관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급변하는 노인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되었다(정경희 외, 1998: 43).

조사원이 사전에 표본추출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게 되는 직접면접 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가구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모든 가구에 대하여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관련 사항, 주택 소유여부 및 경제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외상노인에 대한 부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는데, 일반특성, 가족관계, 경제상황, 부양의 교환, 건강 및 의료,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50일간(1998년 4월 13일~5월 31일)에 걸쳐 다단계 군집표집법을 통해 추출된 전국<sup>5)</sup>의 9,355가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표본 가구에 살고 있는 2,535명의 노인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sup>6)</sup>.

이 연구는 노인과 별거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사가

완료된 2,535명의 노인 중에서 따로 살고 있는 성인자녀가 없거나(128명), 별거 성인 자녀가 있더라도 별거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 특별한 접촉이나 연락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1명), 그리고 별거 성인자녀의 유무에 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노인(10명)을 제외한 2,396명을 먼저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여러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응답이 잘못된 경우 등의 191명을 제외하고 남은 2,205명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sup>7)</sup>

## 2.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노인과 별거 성인자녀간의 유대관계이다.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 이때의 가족유대는 주로 수단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지원의 방향은 노인에 대한 부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호혜적이기보다는 따로 살고 있는 성인자녀에게서 노부모에게로 향하는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김두섭 외, 2000).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hen and Silverstein, 2000), 이 연구에서는 가족유대를 별거 성인자녀의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만 한정했다. 정서적 지원은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이나 신뢰감으로 정의되는데(Chen and Silverstein, 2000), 주로 구성원들 사이의 방문이나 전화 통화, 그리고 편지의 왕래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별거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상호방문 및 상호연락의 빈도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해 먼저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와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편지 등으로 상호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까?' 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각각 '전혀 만나지

5)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에서 표본가가 추출될 경우 조사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섬지역은 표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구체적인 조사설계는 정경희 외(1998)에 잘 정리되어 있다.

7) 따라서 이어지는 글에서 '조사대상노인,' '응답노인,' 또는 '분석대상노인'은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2,205명의 노인을 말한다.

없음(0점) 또는 '전혀 연락 없음(0점)' 부터 '거의 매일(9점)' 까지로 점수화하였다. 이에 따라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는 두 문항의 응답에 주어진 값을 합쳐서 얻었는데, 0(정서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부터 18(정서적 지원이 매우 많음)의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보상자원의 소유:** 노인의 경제적 능력은 자녀들의 방문이나 연락에 대한 물질적 보상의 자원으로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현재적 보상자원과 잠재적 보상자원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적 보상자원의 소유여부는 현재 자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그리고 잠재적 보상자원의 소유여부는 향후 재산을 상속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누구에게 금전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들에게 현재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재적 보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자녀 이외의 사람들에게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경우와 아무에게도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현재적 보상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해 현재적 보상자원의 소유여부에 대한 측정값을 이분화하였다.

잠재적 보상자원은 노인이 자녀에게 향후에 상속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 주겠습니까?' 에 대한 응답에서 일부만 물려 주었거나 아직 안 물려 준 경우에는 잠재적 보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유한 재산을 전부 물려 주었거나, 재산은 있으나 물려줄 생각이 없거나, 또는 물려 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는 모두 잠재적 보상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했다.

**부양에 대한 욕구:** 노인의 부양에 대한 욕구는 거주형태, 만성질환 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측정하였다. 거주형태는 먼저 노인단독가구와 자녀동거가구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하여 독인가구와 부부가구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비혈연가구 등은 기타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거주형태를 (1) 노인단독가구-독신, (2) 노인단독가구-부부, (3) 자녀동거가구-독신, (4) 자녀동거가구-부부, (5)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만성질환 여부는 각종 만성질환<sup>8)</sup> 때문에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에는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 없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여섯 가지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목욕하기, 옷 갈아입

기, 식사하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및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 걷기,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보기'의 6가지 동작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각각의 동작에 대한 응답에 1(전혀 어렵지 않다)부터 4(전혀 할 수 없다)까지의 값을 주고, 이들의 값을 합쳤다. 따라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6부터 24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일상생활 용품이나 약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 그리고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의 4가지 동작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4부터 16까지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중분류분석(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과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변량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의 경우 독립변수의 여러 범주 중에서 하나의 범주에 속한 대상이 지니는 평균값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하지만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에 반해 다중분류분석은 관계의 유무만이 아니라 관계의 유형도 함께 제시해 준다(Kim and Kohout, 1975: 409-410).

- 
- 8) 포함된 질환은 ① 암(위암, 간암, 폐암, 기관지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②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등), ③ 소화기계 질환(소화성 궤양, 만성간염, 간경병 등), ④ 내분비 및 대사성 질환(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⑤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중풍, 뇌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⑥ 호흡기계 질환(폐결핵, 결핵,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 ⑦ 눈 및 귀 질환(백내장, 만성중이염 등), ⑧ 만성 신장질환, 그리고 ⑨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휴유증 등이다.

## IV.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2,205명의 노인들 중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862명(39.1%) 및 1,343(60.9%)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1세로 나타났다. 노부모가 그들의 별거 성인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원의 크기는 0부터 18까지의 값으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13.2(표준편차 3.05) 수준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었다.

세대간 상호교환 관계에 있어서의 현재적 보상자원은 노인이 현재 가족들에게 물질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의 여부로 측정되었으며, 조사대상 노인의 28.8퍼센트가 자녀들에게 현재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잠재적 보상자원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의 유무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노인의 57.1퍼센트가 이미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거나(14.4%),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41.9%), 아니면 재산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상속할 의사가 없어(0.8%) 잠재적 보상자원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피부양 욕구는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 거주 형태,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측정되었다. 조사대상 노인의 17.8퍼센트가 각종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6부터 24까지 측정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경우 평균 7.2(표준편차 2.40)로, 그리고 4부터 16까지 측정되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경우 평균 6.1(표준편차 3.02)로 나타나고 있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sup>9)</sup>.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응답노인의 51.4퍼센트가 노인 독신 또는 노인 부부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노인을 누가 부양하

9) 일상생활과 수단적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각각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의 67.4퍼센트가 일상생활과 관련해 제시된 6가지의 동작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행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과 관련해 제시된 4가지의 동작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노인은 전체의 5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분석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사례수(명)	비율(%)	비 고
계	2,205	100.0	
성별			
남자	862	39.1	
여자	1,343	60.9	
연령(세) <sup>1)</sup>	72.1(5.68)		65~96 <sup>2)</sup>
별거자녀의 수(명) <sup>1)</sup>	4.4(1.71)		1~7 <sup>2)</sup>
자녀에 대한 지정지원 여부			
예	634	28.8	
아니오	1,571	71.2	
재산상속 여부			
전부 상속	317	14.4	
일부만 상속	126	5.7	
아직 상속하지 않음	820	37.2	
상속할 생각 없음	18	0.8	
물려줄 재산 없음	924	41.9	
만성질환 여부			
아니오	1,813	82.2	
예	392	17.8	
거주 형태			
노인단독가구-독신	409	18.5	
노인단독가구-부부	725	32.9	
자녀동거가구-독신	581	26.3	
자녀동거가구-부부	393	17.8	
기타	97	4.4	
일상생활 수행능력 <sup>1)</sup>	7.2(2.40)		6~24 <sup>2)</sup>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sup>1)</sup>	6.1(3.02)		4~16 <sup>2)</sup>
가족유대	13.2(3.05)		0~18 <sup>2)</sup>

주 : 1)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2) 연속변수의 측정값이 지니는 범위를 말한다.

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노인의 85.2퍼센트가 가족이 모시는 게 좋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노인끼리만 따로 사는 게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14.8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실제 노인의 거주형태에서는 51.4퍼센트가 노인 단독으로만 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부양을 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sup>10)</sup>,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노인끼리만 살고 있는 응답노인의 79.8퍼센트가 장남 또는 다른 가족이 모셔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후의 생활비에 대한 생각에서는 응답노인의 38.4퍼센트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 노인의 78.2퍼센트가 자녀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노부모의 특성과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는데, 분석모형에 포함된 세 변수-연령, 성별, 별거자녀의 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노부모가 그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크며,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인구학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배제하기가 어렵다.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평균수명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응답노인의 성별 연령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남성 노인(71.8세)과 여성 노인(72.3세)의 평균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의 연령은 별거 자녀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형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낮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독신노인의 경우 평균 연령이 73.6세로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의 평균 연령인 70.8세보다 높게

10) 노후의 부양과 현재의 거주 형태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노인끼리만 살고 있는 노인의 20.8퍼센트,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는 7.1퍼센트가 따로 사는 게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2〉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별거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다중분류분석의 결과

인구학적 특성	B <sup>1)</sup>	표준오차	t
절편	17.372	0.824	
연령 <sup>2)</sup>	-0.078***	0.011	-7.011
별거자녀의 수 <sup>2)</sup>	0.286***	0.037	7.730
성별			
남자 <sup>3)</sup>	0.439***	0.130	3.387

주: 1) 다중분류분석에서의 계수는 전체 또는 준거집단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나타낸다.

2) 연속변수의 경우, 그 값이 1단위 올라갈 때 가족유대의 변화되는 값이다.

3) 여성노인을 준거집단으로 한 남성 평균값의 편차 및 이에 대한 t 검증이다.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성별과 거주형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남성노인의 경우 13.8퍼센트만이 혼자서 생활하고 있으나 여성노인은 64.9퍼센트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정도는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에 대한 통계학적 검증은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의 주된 영향만을 분석해 〈표 5〉에 정리하였다.

현재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지의 여부는 노인에 대한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재산의 상속여부는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재산을 상속할 가능성을 보이는 노인들에 대한 별거 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산의 일부만을 상속한 경우(14.7), 그리고 아직 재산을 상속하지 않은 경우(13.8)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미 재산을 상속하였거나(13.0), 아니면 재산을 상속할 생각이 없는 노인(11.3)들에 대한 별거 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 노인의 보상자원 소유 여부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다중분류분석의 결과

보상자원	B	표준오차	t
절편	12.578	0.154	
자녀에 대한 재정지원 <sup>1)</sup>			
재원지원 함	0.092	0.144	0.640
재산 상속 여부 <sup>2)</sup>			
이미 전부 상속함	0.509**	0.194	2.627
일부만 상속함	2.160***	0.284	7.613
아직 상속 않음	1.126***	0.147	8.696
상속할 생각 없음	-0.002	0.707	-0.002

주 : 1) 자녀들에게 현재 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2) 물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

상호교환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대상에 대해 의존적으로 될 경우 호혜성의 규범이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상호교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 노인들의 경우 현재 혼자 살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할 경우 가족들이 돌봐 주기를 원하게 되고 자녀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며, 이에 따라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도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피부양욕구와 관련한 변수들 중에서 거주형태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별거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독신 노인의 경우 따로 살고 있는 성인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원이 가장 낮고(12.4), 그 다음으로 혼자 살고 있는 독신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12.8), 이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한 노인일수록 오히려 성인자녀가 보이는 정서적 지원의 크기는 낮았다.

〈표 4〉 노인의 피부양욕구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다중분류분석의 결과

피부양욕구	B	표준오차	t
절편	14.265	0.247	
만성질환 여부 <sup>1)</sup>			
만성질환 있음	0.189	0.169	1.118
거주형태 <sup>2)</sup>			
단독독신	-0.032***	0.211	-4.883
단독부부	-0.256	0.187	-1.369
동거독신	-1.340***	0.200	-6.701
기타	-0.193	0.339	-0.569
일상생활 수행능력	0.029	0.035	0.812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0.101	0.029	-3.497

주 : 1)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2) 부부가 함께 자녀와 동거하는 거주 형태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 3. 노부모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과 별거 성인자녀 사이의 가족유대와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인구학적 특성, 상호교환에 있어서의 보상자원 소유여부, 그리고 피부양욕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러 요인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나타나는 단일 효과만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과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수가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낮았으며, 따로 사는 성인자녀가 많을수록 그들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분류분석에서 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노인의 성별은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통계

<표 5> 관련 변수들이 노인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회귀하는 계수

피부양욕구	$\beta$	t
성별(남자=1) <sup>1)</sup>	-0.023	-0.910
연령	-0.071**	-3.040
별거 성인자녀의 수	0.144***	6.759
가족에 대한 지원(예=1) <sup>1)</sup>	-0.011	-0.518
잠재적 보상자원 소유 여부(소유=1) <sup>1)</sup>	0.141***	6.099
만성질환(소유=1) <sup>1)</sup>	0.019	0.911
거주형태(단독독신=1) <sup>1)</sup>	-0.110**	-2.582
거주형태(단독부부=1) <sup>1)</sup>	-0.064	-1.279
거주형태(동거독신=1) <sup>1)</sup>	-0.118*	-2.518
거주형태(동거부부=1) <sup>1)</sup>	0.019	0.440
일상생활 수행능력	0.009	0.315
수단적 일상 수행능력	-0.064*	-2.122
R <sup>2</sup>	0.089	

주 : 1) 이원화된 변수(더미 변수 포함)를 말하며, 괄호안에 나타난 특성 이외에 대해 '0'의 값을 주었다.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

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방향마저도 반대로 나타나 남성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여성 노인에 비해 낮았다.

세대간 상호교환 관계에 노인들의 잠재적 보상자원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잠재적 보상자원을 지닌 노인들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노인의 부양 욕구와 관련한 변수들 중에서는 거주형태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신 노인들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지와 따로 사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자녀들로부터 낮은 수준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의 도움없이 수단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원의 크기는 작았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전체 노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정서적 지원의 변량을 8.9 퍼센트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R=0.298$ ). 이는 노인과 별

거 성인자녀 사이에 나타나는 정서적 지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 주며, 노인과 자녀간의 정서적 지원관계의 결정요인을 찾는 연구가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V. 논의 및 결론

어느 사회든지 인구가 고령화되면 노인부양과 관련한 세대간 가족유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기능에 있어 노인들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게 되지만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면서 노인의 부양을 위한 가족의 기능적 지원도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노인의 부양에 관한 주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나,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 가족관계의 형태가 가족 내에서의 노인부양 기능이 축소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세대관계 또는 세대간 가족유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에 대해 따로 살고 있는 성인자녀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크기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자녀의 사회적 지원이 노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노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주로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과 별거 성인자녀 사이의 가족유대와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인구학적 특성, 상호교환에 있어서의 보상자원 소유여부, 피부양욕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노인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별거 자녀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이 크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으로 작용하게 될 자원을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별거 성인자녀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앞으로 재산을 상속할 가능성을 보이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독신 노인의 경우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가장 낮았으며, 그리

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한 노인일수록 오히려 성인자녀가 보이는 정서적 지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대간 가족관계도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구성원간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교환도 일반적으로 호혜의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Call et al., 1999), 동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Starrels et al., 1997). 이 연구에서도 재산의 일부만을 상속하였거나 또는 아직 재산을 상속하지 않아 앞으로 재산을 상속할 가능성을 지닌 노인들은 가족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잠재적 보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크기는 잠재적 보상자원을 지니지 않은 경우의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자 살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할 경우 노인들의 피부양에 대한 욕구는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의존적이 된다. 상호교환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존은 관계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다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독신 노인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가장 낮았으며,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한 노인일수록 별거 성인자녀가 보이는 정서적 지원은 낮았다. 이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상호교환이 호혜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도 있다.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 중의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부양을 받게 되며, 이들 노인에 대해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세대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면적이기 때문에 상호교환을 구성하는 가족구성원들의 모두의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김두섭 외, 2000). 그러나 2차 자료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노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별거 성인자녀의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세대간의 가족관계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의 선행연구가 보이는 결과들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별거 성인자녀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가족유대를 구성하는 사회적 지원의 구성체를 모두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대간의 관계는 주로 구성원간의 사회적 지원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지원은 주로 구조적, 기능적 및 평가적 요인으로 구성된다(Chen and

Silverstein, 2000).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능적 지원 중의 한 형태인 정서적 지원에 만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세대간에 이루어지는 다면 구조의 지원체계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세대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전체 노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정서적 지원의 변량을 8.9 퍼센트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세대관계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의 실증적 연구라는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노인부양과 관련한 실천적 의의도 갖는다. 세대간 가족관계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이 노인에게 대한 자녀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노인부양의 규범적 구속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대간의 지원기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능을 사회가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에서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태 · 이은희 (1997),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사회복지 연구》 7, 193-213.
- 김두섭 · 박경숙 · 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 방안," 《한국 인구학》 23(1), 55-89.
- 김윤정 · 최혜경 (2000), "사회적 지지로서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20(1), 209-223.
- 김정석 · 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박영란 (1999), "노인부양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4, 167-204.
- 박재홍 (1991),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교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9(여름), 1-19.
- 유성호 (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7(2), 38-50.
- 윤종희 · 이해경 (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17(1), 289-304.
- 이가옥 · 서미경 · 고경환 · 박종돈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희 (1998),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 221-239.
- 이형실 (1999), "농촌 부부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09-120.
- 정경희 · 조애저 · 오영희 외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원 (1991), "전출가구원의 가족유대," 《보건사회논집》 11(2), 83-99.
- 최순남 (1999), 《현대노인복지론-개정판》, 한신대학교 출판부.
- 황미영 (1999),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 27-46.
- Back, Kurt W. (1981), "Small Groups," in Morris Rosenberg and Ralph H.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s, pp. 320-343
- Bengtson, Vern L. (1975), "Generations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1-16.
- Call, Kathleen Thiede, Michael A. Finch, Shirley M. Huck, and Rosalie A. Kane (1999), "Caregiver Burden from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Caring for Older People After Hospital Dischar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88-699.
- Chambers, David L. (1979), *Making Fathers Pay: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en, Xuan and Merrill Silverstein (2000),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in China," *Research on Aging* 22(1), 43-65.
- De Vos, Susan (2000), "Kinship Ties and Solitary Living Among Unmarried Elderly Women in Chile and Mexico," *Research on Aging* 22(3), 262-289.
- Esgebeen, David J. (1992), "Family Structure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s," *Research on Aging* 14, 427-447.
- Emerson, Richard M. (1981), "Social Exchange Theory," in Morris Rosenberg and Ralph H.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s, pp. 30-65
- Euler, Harald A., Sabine Hoier, and Percy A. Rohde (2001), "Relationship-Specific Closeness of Intergenerational Family Ties: Findings From Evolutionary Psychology and Implications for Models of Cultural Transmiss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2), 147-158.
- Furstenberg, Frank F., Christine W. Nord, James L. Peterson, and Nicholas Zill (1983), "The Life Course of Children of Divorce: Marital Disruption and Parental Conta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640-656.
- Grief, Geoffrey L. (1985), *Single Fathers*. Lexington: Lexington Books.
- Hogan, Denis, David Esgebeen, and Clifford Clogg (1993),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428-1458.
- Hoyert, Donna L. (1991), "Financial and Household Exchanges Between Generations," *Research on Aging* 13, 205-225.
- Kim, Jae-On, and Frank J. Kohout (1975), "Analysis of Variance and Covariance: Subprograms ANOVA and ONEWAY," in Norman H. Nie, Hadlai Hull, Jean G. Jenkins, Karin Steinbrenner, and Dale H. Bent (eds.), *Statistical*



-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pp. 398-433
- Kramer, Betty J. (1997), "Gain in the Caregiving Experience: Where are We? What Next?" *The Gerontologist* 37, 218-232.
- Lee, Gary R., Julie K. Netzer, and Raymond T. Coward (1995), "Depression Among Older Parents—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23-33.
- Pyke, Karen (1999), "The Micropolitics of Care in Relationships Between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61-672.
- Reinhardt, Joann P. and Rosemary Blieszner (2000), "Predictors of Perceived Support Quality in Visually Impaired Elder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3), 345-362.
- Seltzer, Judith A. Nora Cate Schaeffer, and Hong Wen Chang (1989), "Family Ties After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ing and Paying Child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013-1032.
- Silverstein, Merrill and Vern L. Bengtson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420-460.
- Silverstein, Merrill, Xuan Chen, and Kenneth Heller (1996), "Too Much of a Good Thing?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70-982.
- Silverstein, Merrill and Eugene Litwak (1993), "A Task Specific Typology of Inter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33, 258-264.
- Starrels, Marjorie, Berit Ingersoll-Dayton, David Dowler, and Margaret Neal (1997), "The Stress of Caring for a Parent: Effects of the Elder's Impairment on an Employed, Adul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60-872.
- Turner, Jonathan H. (1982),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Third Edition, Homewood: The Dorsey Press.
- Yang, Hongqiu (1996), "The Distributive Norm of Monetary Support to Older Parents: A Look at a Township in Chin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404-415.

Family Ties between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Social Support from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Keywon Cheong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affecting emotional support between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With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on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as theoretical framework, the effects of aging par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otential reward resources, and need for care were tested by analyzing data collected from 2,535 persons aged 65 and over in 9,355 sample households of 'National Survey of Living Status and Welfare Needs of the Elders-1998'. The statistical analysis of 2,205 aging parents with adult children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reveals that the aging parents who have potential reward resources are provided more emotional support by their children than the aging parents without resources are. Findings also show that the elders who live in same households with their own children, and need help from other people with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btain less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e social exchange perspectives on family ties between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but only 8.9 per cents of variance in degree of emotional support is explained by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Key Words: aging parents, adult children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family ties,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emotional support